

2022 신년 말씀

열들을 택하신 예수님

누가복음 6:9-19

요절 / 누가복음 6:12,13, "이 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으매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열들을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2022년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누가복음 6장 말씀을 통해 올해의 영적 방향을 잡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6장 1절부터 5절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섬기기 위해 머리 돌 곳 없이 사는 불안정한 삶을 감수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따라 다니던 제자들의 삶도 불안정하고 그들은 때로 몇 끼를 굶기도 하였습니다.

어느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갈 때 제자들은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생밀알을 먹었습니다. 이런 그들을 볼 때 얼마나 배가 고파지면 저럴까 하는 측은한 마음이 듭니다. 따듯한 밥 한상 차려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정상적인 사람의 심정입니다. 그런데 당시 종교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고 날카롭게 비판하였습니다."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그들은 안식일 법을 지키는 것을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율법적이었습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시는데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회당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일 예배드리는 것과 비슷한 모임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날 회당에 한 특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오른손 마른 사람이었습니다. 손이 말랐다는 것은 신경과 근육이 마비되어 손을 쓸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을 말합니다. 그는 양손이 있었지만 가장 활동적이며 유용한 오른손을 전혀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악기

를 연주할 수 없었습니다. 신발 끈을 혼자 맬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 악수를 하려고 오른손을 내밀면 얼른 왼손을 내밀어 상대방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말라버린 오른손은 그의 마음도 열등감으로 오그라들게 하였습니다. 그는 죄 때문에 그런 장애를 갖게 되었다는 죄책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는 참안식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보시고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어찌하든지 낮게 해주기 원하셨습니다. 당시 종교지도자들은 백성들의 목자 역할을 했어야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무엇을 하였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았습니다. 그들은 손 마른 사람을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찾는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고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수단으로 삼아 무엇을 이루고자하는 그 자체가 심히 악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과 악한 음모를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종교지도자들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손 마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오늘은 안식일이니 내일 다시 오세요." 또는 "오늘 모임이 끝난 후에 잠깐 봅시다." 도리어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손 마른 사람에게 "일어나 한 가운데 서라" 하셨습니다. 그로 하여금 회당 한 가운데 서도록 하시고 이를 통해 종교지도자들의 죄악에 도전하셨습니다. 그가 회당 한 가운데 서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물으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당시 사람들은 안식일에 일하는 것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만을 생각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도전하셨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선을 행하거나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거나 죽이는 이 모든 것은 무슨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안식일이 아무 일도 하지 않음으로써 쉬는 날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함으로써 쉬는 날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선한 일은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사람을 살릴 때 그 사람도 안식을 얻고 선한 일을 한 사람도 안식을 누립니다. 종교지도자들은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지 않음으로 그 사람이 힘이 없는 상태에 있도록 방치하였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십니다. "네 손을 내밀라." 손 마른 사람이 자기 손을 내미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신경과 근육이 다 말라버린 손을 내민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손을 앞으로 죽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말랐던 손이 펴졌습니다. 와! 실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의 손이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손을 폼다 당겼다, 올렸다 내렸다, 앞으로 돌렸다 뒤로 돌렸다, 자유롭게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이는 죽은 신경들이 살아난 것이요 없던 근육들이 새롭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실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적입니다. 한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신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연약함에서 구원하여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분이십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진정한 안식인 구원을 주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종교지도자들은 한 손 마른 사람이 낫게 된 일을 기뻐해야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이적 앞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임을 영접하고 그 앞에 엎드려야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님을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였습니다. 분노는 노가 가득찬 것을 말합니다. 분노는 상대방을 해치는 마음입니다. 분노는 그 마음의 동기가 살인과 같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기보다 예수님이 안식일 율법을 어긴 것으로 분노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처리할 방법을 서로 의논하였습니다. 그들은 선조들이 세속적인 헬라문화 가운데서 유대공동체를 지키고자 만들었던 전통에 함몰되어 영적 소경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당시의 백성들의 목자라고 행세하였습니다. 영적 지도자라는 자부심에만 빠져 도움이 필요한 백성들에 대해 무관심하였습니다. (롬2:17-23) 그 시대의 백성들은 목자를 잃고 이리 저리 방황하는 양들이 되었습니다. 마귀의 먹잇감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암울한 시대에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12절을 보십시오. "이 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예수님은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실상 예수님은 늘 기도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 시점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는 기도하셨습니다. 그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셨습니다. (눅3:21,22) 이후에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림을 받아 40일간 광야에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언제나 큰 역사를 섬기신 후에 조용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시며 영적 힘을 덧입으셨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산으로 가서

기도하신 것은 조금 더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한 기도에서 더 나아간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그 시대의 문제 해결을 위한 방향을 구하는 절박한 기도였습니다.

본문 12절은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고 기도하신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에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산에서의 밤이 얼마나 춥고 또 시간은 왜 그렇게 더디 가는지 잘 모릅니다. 저는 오래전 군대에서 밤새 외곽 보조근무를 설 때 겨울 밤이 얼마나 춥고, 시간은 정말 얼마나 늦게 가는지 절감하였습니다. 어두운 밤을 뚫고 동녘 하늘이 밝아 오르고, 산 위에서 해가 솟아오를 때, 그 따스한 빛을 눈으로 보며 또 그 온기를 누리는 감격과 환희를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산에서 밤이슬과 추위를 무릅쓰며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셨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기도 내용을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신 전후를 살펴보면 충분히 추정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시대를 위해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타락한 종교지도자들로 인해 또한 진리의 말씀과 사랑을 받지 못하는 백성들로 인해 마음이 상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문제들을 하나님께 아뢰며 그 시대를 어떻게 섬겨야 할지 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깊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그 시대의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 발견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사장 제도를 개혁하며 종교지도자들을 척결하는 것이 그 시대 문제의 해결책이 아님을 아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싸우며 그들을 회개시키는 일에 주력하는 것도 아님을 아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문제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마귀와의 싸움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물리치셨던 그 마귀는 여전히 종교지도자들의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마귀는 종교지도자들의 교만을 부추기고 그들의 영적인 눈을 가렸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하며 도리어 대적하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고후4:4)

예수님은 자신의 싸움의 대상이 혈과 육이 아니요 이 세상을 주관하는 악의 영들과 그들의 우두머리인 마귀를 상대하는 것임을 아셨습니다. (엡6:12)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분별력과 능력을 덧입는 싸움을 싸우셨습니다. 온 밤을 지새워 기도하시며 영적분별력과 성령의 능력을 충만히 받으셨

습니다. 새벽이 밝았고 아침 해가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에도 빛이 임했고,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영적 방향도 잡혔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13절을 보십시오. "밖으매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열둘을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예수님은 같이 산에 올랐던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17절을 보면, 산 아래에는 아직도 "그 제자의 많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제자'라는 말은, 때때로 모였다가 흩어지는 무리와 달리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부르신 제자의 수가 얼마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 70인 정도이었을 것입니다. (눅10:1) 예수님은 그 중에서 열둘을 택하셨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열둘을 택하셨을까요? 마가복음 3:13에 보면 "예수님은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그냥 기분에 따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같이 지내며 눈여겨보시고, 특별하게 키울만하다고 보신 자들을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주권에 따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열둘을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습니다. '사도'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곧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파견된 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지상에서의 삶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복음을 완성하시고 하나님께 돌아가셔야 합니다.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그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할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물론 그들은 아직 사도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빼어난 제자로 양성하셔서 장차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도록 하시는 비전 가운데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전파 역사가 영적 전쟁임을 아셨습니다. 기성 종교지도자나 사회의 구조나 제도와와의 싸움이 아니라 마귀와의 영적 싸움임을 아셨습니다. 이러한 영적 전쟁에서 장수들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 복음전파 사역을 이끌어갈 영적 지도자들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열둘을 그러한 자들을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그들을 훈련하사 장차 어떠한 고난도 감당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러한 사도들로 세우고자 영적 방향을 잡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양성 방법은 무엇일까요?"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시고 훈련 하셨다","정병 양성을 하셨다","빠어난 제자들로 키우셨다"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군대 훈련과 같이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양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그래서 제자 프로그램을 만들고 특별한 교육과정을 만듭니다. 다양한 코스를 만들고 그 과정을 마치면 수료증이나 졸업장을 줍니다. 그러한 훈련이나 교육과정은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일정한 프로그램이나 코스를 마친다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지식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그 인격과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3:14 "이에 열둘을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예수님이 열둘을 세우신 첫째 목적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라고 하십니다. 이는 열둘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사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또한 무엇보다 예수님의 삶을 배우도록 하심입니다.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진리의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과 겸손, 섬김과 희생, 온유와 지혜, 예수님의 믿음과 기도생활 등 모든 면을 보고 본받도록 하심입니다. 이는 실로 참된 스승과 제자의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격이나 믿음을 배우도록 하지 않고 단지 지식만 얻었다고 하여 일정한 타이틀만 주고 끝나면 자만심이 가득한 영적 엘리트를 키우기 쉽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현대의 바리새인들이 되기 쉽습니다. 우리는 먼

저 예수님을 잘 배워야 합니다. 사도바울도 일생동안 예수님을 배우고자 하였기에 예수님의 좋은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빌3:10) 우리가 제자를 양성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우도록 하고, 예수님을 배우기 위해 애쓰는 면에서의 우리를 배우도록 도와야 합니다. (빌3:17)

오늘날의 대학은 지식의 전수 장소가 되어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좋은 직업과 경력을 얻기 위해 대학에 들어옵니다. 캠퍼스에서 참된 스승과 제자의 관계성이 드뭅니다. 지난 근 2년간 코로나 시대를 겪으며 사람들은 더욱 다른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개인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캠퍼스에 모이기보다 점점 소위 메타버스라고 불리는 가상 공간에 모여 대화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섬기는 캠퍼스 자체도 그 넓은 땅과 건물을 차지하며 존립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점점 제기 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대학생들은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날은 사회적 약자 보호를 명분으로 하는 반 기독교적인 세력이 힘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소수자 보호라는 프레임을 선점한 사람들이 그들의 장

에서 정치적인 싸움을 걸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12는 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회제도도 아닙니다. 첫 사람 아담의 타락 이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치열하게 계속되는 이 영적 전쟁의 상대는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사탄의 전략은 자기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하는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로 하여금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지 않도록 다른 것에 집중하도록 유혹합니다. 세상에서의 정치 경제적인 싸움을 하도록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마귀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고후4:4). 예수님은 마귀와 기도로 싸우셨습니다. 또한 그러한 영적 싸움을 이어갈 빼어난 제자들을 양성하고자 방향을 잡으셨습니다. 우리도 겉으로 드러난 세상 일들의 배후에 역사하는 마귀의 존재와 그 간교한 궤계를 알고 대적해야겠습니다. 이를 위해 영적 분별력과 능력을 덧입기 위해 기도에 힘써야겠습니다. 전쟁에서는 지혜롭고 용감한 장수들이 필요합니다. 장수들이 강하면 이깁니다. 우리가 이 시대와 오고 가는 모든 시대를 섬기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적 장군, 곧 빼어난 제자들을 양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를 영접하고 올 한해 전심을 드리는 기도와 빼어난 제자양성을 위해 온 힘을 다하길 기도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택하신 열둘은 누구입니까?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매와 마태와 도마와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롯 유다라."

누가는 시몬에게만 수제자로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셨다고 합니다. 경쟁심 많은 젊은이들 가운데 눈에 드러나도록 하기까지 차별적으로 수제자를 세우는 것은 내부 갈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시몬을 특별히 수제자로 세우시고자 뜻을 정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지혜입니다. 주님의 승천 후 베드로는 열두 사도와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열두 제자의 특징을 살펴보면, 그들은 첫째, 자기 일에 성실하던 평범한 사람들이며 둘째,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기꺼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결단한 자들이며 셋째, 배우기 원하는 자들이며 넷째, 각계각층의 다양한 직업의 사람들이되 그중에 종교지도자 출신은 없다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그들은 복음을 가

르칠만한 새 가족부대와 같은 마음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왜 열두 명만을 택하셨을까요? 이는 열두 명이 예수님이 같이 지내면서 인격적으로 도우실 수 있는 최대의 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이상이 되면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관계성을 맺기가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열둘은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상징하며 이는 온 세상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할 사도들로 열둘을 세우셔서, 그들과 늘 함께 하사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성 가운데 키우고자 분명한 방향을 잡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셨습니다.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열둘을 데리고 어느 산속 깊은 곳에 들어가 3년간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평지에 내려오셨습니다. 평지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요 언제나 문제가 많은 곳입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삶의 실제적인 문제에 부딪치며 어떻게 사람들을 섬겨야 하는지 열두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 주위에는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각지에서 온 많은 백성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 받는 자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실제적인 능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러한 능력을 통해 많은 무리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제자들에게는 두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복음 진리에 기초한 영적인 지식과 분별력입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은 열둘과 늘 함께 다니시며 복음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진리로 충만하게 해주셨습니다. 열둘은 예수님의 은혜롭고 권세 있는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어부 출신 베드로가 이와 같이 성경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게 된 것은 그가 예수님과 동행하며 진리의 말씀을 듣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것이 기초가 되어 나중에 성령의 충만을 덧입었을 때, 그 모든 것이 큰 확신으로 새롭게 영접이 되어 담대히 말씀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 둘째는 영적인 능력입니다. 제자들은 나중에 성령 충만을 받음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덧입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진리의 말씀과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마귀와의 영적 싸움을 이

기는 지도자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길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볼 때 겉으로는 정치, 경제, 사회적인 문제가 많지만 실제적인 문제는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마귀와의 영적 싸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러한 영적 싸움의 전사요 제자들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싸움을 능히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마음을 다해 기도하며 영적 지혜와 능력을 덧입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소수의 제자들을 사도로 세우시고 이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새 언약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이는 만일 예수님이 지금 세상에 계셨더라면 하셨을 그 일입니다. 저 자신부터 올해에 영국의 두 시니어 목자들이 더욱 빼어난 제자들로 성장하도록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위해 제가 먼저 기도에 힘쓰며 예수님의 내면을 깊이 배우길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 세계 캠퍼스 가운데 사탄 마귀와 싸우는 영적 전사들의 공동체로 축복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올해 우리 모임을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워 나가는 제자양성 공동체로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